

원주민 반발에 원호사지구 상가 이전 ‘암초’

“논의없이 일방추진 안돼” 충효동 주민들 원점 재검토 탄원

3중규제로 생계 위협…광주시 “주민설명회 열고 의견 반영”

광주시 북구 충효동 일원으로 이주를 추진 중인 ‘무등산 원호사 집단시설지구(상가시설) 이주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충효동 주민들이 ‘원주민과 상의 없는 일방적인 이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1일 충효동지역발전협의회(이하 충효동지발협)와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충효동지발협은 최근 광주시와 북구, 문화재청,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원호사지구 상가 이주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위한 원주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충효동 수리마을과 충

효마을 등 인근 마을 주민 76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호수생태공원 주차난 해결과 인도 신설 ▲원호사지구 상가 이주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 등은 올해 초 무등산 원형복원을 위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원호사지구 이주 대상지를 북구 충효동 882번지 일원(16만8137㎡)으로 확정짓고 이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원호사 상가 이주단지 등 조성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에 착수해 현장조사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북구도 비슷한 시기 투기행위 방지를

추음으로 내몰려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효동 일원은 지난 2013년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3중 규제로 묶여 풀 한 포기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터전을 빼앗아 원호사지구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일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 등은 올해 초 무등산 원형복원을 위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원호사지구 이주 대상지를 북구 충효동 882번지 일원(16만8137㎡)으로 확정짓고 이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원호사 상가 이주단지 등 조성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에 착수해 현장조사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북구도 비슷한 시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까지 원호사지구 이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수정 북구의회 부의장은 “충효동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등 3중 규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생태공원 조성 이후 주차 문제 등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만 광주시와 북구청의 책임 전가로 10여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원호사지구 이주를 추진하면서 충효동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생계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패러글라이더 줄 엉켜 추락

여수서 1명 사망·1명 중상

여수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동호회원 2명이 서로 줄이 엉키면서 산으로 추락, 한 명이 숨지고 나머지 한 명도 중상을 입었다.

21일 낮 12시19분께 여수시 덕총동 마래산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비행하던 김모(54)씨와 이모(56)씨가 마래산 8부 능선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바위 쪽으로 추락한 김씨는 숨지고 나뭇가지에 줄이 걸린 이씨는 허리뼈 일부를 골절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기도의 한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소속인 이들은 회원 40여명과 함께 지난 20일 마래산을 찾았으며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팀을 나눠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7명이 각자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한 패러글라이더 2인의 줄이 엉켜 떨어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더위 탈출엔 폭포가 최고 구례의 낮 기온이 36.4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21일 구례군 산동면 수락폭포를 찾은 피서객들이 폭포수를 맞으며 더위를 날려보내고 있다.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올 여름 무더위는 26일께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원아 사망 여수 통학버스 무자격 차량

종합보험 미가입에 아들 명의...어린이집 대표 영장

여수에서 두 살배기 남아가 치어 숨지게 한 통학버스는 운행 허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통학버스는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종합보험에 가입돼야만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지난 2010년 운행

허가 당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됐으나 이후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됐으면 인명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에 일부 제한이 있어서 피해를 본 학부모(2)군의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사고 차량의 명의자가 당시 차를 운전한 어린이집 대표 송모(여·56)씨가 아닌

송씨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학차량은 시설장(원장이나 대표) 명의여야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고 차량 명자의는 2010년 송씨였지만 2014년 아들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송씨와 허가 관청인 여수시를 상대로 무자격 차량을 운행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무자격으로 확인되면 피해 유아의 보상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운행허가 이후 종합보험 해지 및 차량 소유자 변경인원, 이에 대한 여수시의 관리감독 문제 등을 들

여다보고 불법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9일 대표 송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장 강모(여·32)씨와 인솔교사 안모(여·22)씨, 보육교사 김모(여·23)씨 등 3명은 박권을 어린이집까지 안전하게 인솔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인건했다.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께 여수시 미평동 M어린이집 앞에서 박권이 통학차량에서 내려 차량 뒤편에서 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사회정의의 흔드는 취업 사기 엄벌

교사채용 비리 이사장 징역 4년 구형 취직 앞선 구의원도 4년형 박성성 전 조선대 이사 구속기소

‘취업 사기’에 가담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 채용 비리는 매관매직과 다름없어 사회정의가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도 취업 사기를 벌인 전 조선대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종민 판사는 배임자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학원 이사장 차모(76)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8300만원의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이사 차모(65)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950만원, 법원실장 정모(6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17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족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선발의 중요성에 비춰 이들의 행위는 자칫 교육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헌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와 신분이 교육공무원에 준해 보장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 대부분이 재정보조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위는 매관매직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윤리관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예만한 갑수성을 가지고

지켜봤을 학생들과 하울 뿐인 공개경쟁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자들,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교육계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및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냉소적 인식을 안겨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원신학 학교 고교사와 직원 채용 과정에 있어 교사지방생 등 9명으로부터 6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구형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광주 광산구의회 차모(61)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인 지지로 3선 광산구의원에 당선된 피고인은 고도의 정략성이 필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채용 앞선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공무원 직무의 공공·신뢰·정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검사 정진홍)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성성(68) 전 조선대 이사를 기소했다. 박씨는 대학 교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총 4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챘 혐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기 입직원 3명 추가 구속

광주시 서구 능성동 오피스텔 분양 사기에 가담한 일당이 추가로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9일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쉼지앤디도시개발 이모(50) 대표이사, 직원 김모(37)씨 등 입직원 3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경찰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범용역 인물인 박모(57) 대표이사와 함께 능성동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을 피분양자 545명과 다중 계약해 380억원 상당을 가로챘 혐의다.

이들은 2011~2013년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 482가구 중 80%가량을 정상

분양하고 나서 계약하지 또는 미분양량을 브로커와 짜고 시가보다 30%가량 싸게 분양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브로커 노릇을 하며 중개 수수료를 받아 쟁건 부동산경매학원 강사 원모(57)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씨는 총 100여건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건당 300만원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쟁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욱기자 khh@kwangju.co.kr

파출소서 주취 소란 무죄 50대 2심서 벌금형

“술을 마시고 관공서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영성)는 지난해 5월21일 오전 12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파출소에서 20여 분간 경찰관을 조롱하고 욕설을 내뱉어 경범죄처벌법(주취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5)씨에게 벌금 50만원

을 선고. ○…1심은 장씨가 당시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했으나, 한소심 재판부는 “매당 법의 전체적 취지를 고려하면 1심의 판결은 구성요건을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행동’으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유죄선고 의미를 설명.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개>					
[아파트]					
2016타경 4068	1	여수시 무전2리399, 204동 4층 405호 [화정] 아파트	82,000,000		
2016타경 4164	1	여수시 소동5길399, 305동 9층 905호 [소동] 아파트	96,000,000		
2016타경 4751	1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246-4 영물리지발기동 5층 501호 84,746㎡	130,000,000		
2016타경 4812	1	여수시 여서2로20, 10동 4층 405호 [여서동] 아파트	182,000,000		
2016타경 4935	1	여수시 무전2리27, 202동 2층 209호 [선원동] 아파트	65,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6타경 4454	1	여수시 학동3길23, 4층 402호 24.05㎡	75,000,000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2298	1	여수시 돌산읍 용림리 산172-1 1675㎡	5,363,100		일괄매각
2016타경 2410	1	여수시 남면 화대리 507-4 1567㎡	5,363,1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여수시 남면 두리리 178, 446㎡	25,057,700		일괄매각, 목축2,3
	3	여수시 남면 두리리 178, 446㎡	25,057,700		농지취득자격증명
	4	여수시 남면 두리리 178, 446㎡	25,057,700		일괄매각, 농지취
	5	여수시 남면 두리리 178, 446㎡	25,057,7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6타경 3437	1	순천시 인제동 281 112㎡	3,3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여수시 남면 두리리 178, 446㎡	32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3	여수시 남면 두리리 178, 446㎡	1,93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4	여수시 남면 두리리 178, 446㎡	1,93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5	여수시 남면 두리리 178, 446㎡	1,93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6타경 3741	1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787-3 231㎡	27,25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6타경 3796	1	고흥군 통안면 통남리 968 14㎡ [제시외건물]과, 별정지상권설립여지있음	대	1,932,000	
	2	여수시 연동7길33-1, 102동 지하층 1호 [아파트, 리프트] 113.05㎡	임야	1,982,500	분묘기권설정여지있음
	3	여수시 연동7길33-1, 102동 지하층 1호 [아파트, 리프트] 113.05㎡	전	1,982,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3857	1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1007-1 843㎡	전	11,673,000	수목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여수시 연동7길33-1, 102동 지하층 1호 [아파트, 리프트] 113.05㎡	임야	7,533,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4102	1	고흥군 금산면 신봉리 산18-1 9648㎡ [서영동] 특장면 도농리 산53 5178㎡ [이명주지분51782분동원17전부(분묘소제)]	임야	15,263,625	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43,457,775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4270	1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50,72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50,72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4577	1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12,892,100	공유자우선매수권
	2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12,892,100	공유자우선매수권
2016타경 4638	1	고흥군 부두면 갈두리 2890-1 1592.8㎡ [고갈동] 특장면 도농리 산53 5178㎡ [이명주지분51782분동원17전부(분묘소제)]	답	23,522,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23,52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6타경 4690	1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78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78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8,597,8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분묘기권설정
	4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8,597,8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분묘기권설정
2016타경 4874	1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1181-5 1686㎡	전	4,853,000	분묘기권설정,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4,853,000	분묘기권설정,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18,071,000	분묘기권설정,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18,071,000	분묘기권설정,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50570	1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1181-5 1686㎡	전	8,177,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8,177,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1181-5 1686㎡	전	21,91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21,91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5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1181-5 1686㎡	전	2,503,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6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2,503,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7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1181-5 1686㎡	전	7,487,1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8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7,487,1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50815	1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1181-5 1686㎡	전	4,007,100	일괄매각
	2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4,007,100	일괄매각
	3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1181-5 1686㎡	전	1,823,900	일괄매각
	4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1,823,900	일괄매각
	5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1181-5 1686㎡	전	1,823,900	일괄매각
	6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1,823,900	일괄매각
	7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1181-5 1686㎡	전	8,013,2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8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8,013,2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50815	1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1181-5 1686㎡	대	33,096,000	주거나지
	2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대	33,096,000	주거나지
2016타경 50815	1	순천시 대대동 1170 443㎡ [이명주지분3/5전부-이상광주지방법원순천시지방법원판결,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대정상분할]	전	21,960,000	분묘기권설정,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여수시 소라면 덕암리 788 668㎡	전	21,960,000	분묘기권설정,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이민주